

< 돌아온 거장 정선 - 전통회화와 새로운 정신 > 개막식 축하

2018.12.12.(수) 19:00

바이만 주지사님(staatssekretär),

코쉴 의원님,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전시를 후원한 한국국제교류재단(The Korea Foundation)을
대표하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말 창립된 이래 지난 25년간 지적·
인적·문화적 교류를 매개로 하여, 한국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에 한국
친구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미술작품은 작가 개인의 예술정신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동시대인들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시의 모티브가 된 겸재 정선은 진경산수화풍을 통해 우리

나라 회화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화가 중 한 분입니다.

당시 중국의 작품을 모방하던 화풍에서 과감히 벗어나 전국의

명승고적을 두루 여행하면서 창의적인 구도와 특징있는 필치로 우리

산천의 수려함을 그려내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화가인 겸재 정선과 또 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새롭게 창작하신 작가님들이, 작품을 보는 이에게 전달하고 싶어하시는 메시지가 이번 전시를 통해 독일 관객들에게 조화롭게 다가갈 것으로 기대하며, 다시 한번 '돌아온 거장 정선 - 전통회화와 새로운 정신' 전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Kunstverein64와 독한포럼, 그리고 이렇게 멋진 전시공간을 제공해주신 작센주 대표부 관계자 분들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